

# 롯데, 美 바이오 공장 인수... 글로벌 톱 CDMO '첫단추'

(위탁개발생산)

‘롯데바이오로직스’ 신설법인 설립 시리큐스 BMS 공장 2000억에 인수 신사업 진출 선언 후 첫 인수합병 10년간 바이오에 2조5000억 투자

롯데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세운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의 밑그림을 빠른 속도로 그리고 있다.

15일 롯데는 6월 전까지 롯데지주 산하에 자회사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신설하고 2030년 글로벌 톱 10 바이오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년 간 바이오 의약품 사업에 약 2조 5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첫 걸음으로 해외 생산공장을 인수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롯데는 이사회를 열고 미국 뉴욕주 시리큐스시에 위치한 브리스틀 마이어스 스콧(Bristol-Myers Squibb) 바이오 의약품 생산공장 인수를 의결했다.

인수규모는 1억 6000만 달러(약 2000억원)이며 최소 2억 2000만 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 계약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롯데는 공장 인수 후에도 BMC와 협력관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롯데와 BMS 양사는 각종 규제 승인 완료 등을 전제로 2022년 하반기 중 거래가 완료 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이번 공장 인수는 신동빈 롯데그룹



뉴욕주 시리큐스시에 위치한 BMS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시설 내부 풍경. 공정 작업자가 탱크에서 용액 수치를 확인 중이다. /BMS

회장이 주도했다. 지난 4월 미국 출장 중 시리큐스 공장을 직접 살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은 이사회에서 “BMS 시리큐스 공장의 우수한 시설과 풍부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속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롯데와 시너지를 만들어 바이오 CDMO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전에서 활약한 이원직 롯데지주 신성장2팀장은 “시리큐스 공장은 임상 및 상업 생산 경험이 풍부해 즉시 가동할 수 있는 공장으로서, 진입장벽이 높은 바이오 산업에서 롯데가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매물로 판단했다”며 “사업 초기 항체 의약품 CDMO 집중을 통해 바이오 사업자로서 역량을 입증하며 사업 규모와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리큐스 공장은 생화학자, 생물학자, 엔지니어 등 420명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시리큐스 공장은 현재 동·식물 세포를 이용한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임상시험용 의약품 소량 생산과 바이오 의약품 대량 생산 방안을 연구 중이다.

PD-1 억제제 오피비오(Opdivo)와 여보이(Yervoy), 면역억제제 뉴로로직스(Neurologics),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앰플리티(Amplity) 등이 이곳에서 만들어졌다. 리서치 업체 EP(Evaluate Pharma)은 2026년 세계 처방약 시장에서 오피비오는 예상 매출 133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는 공장 인수 후에도 신규 제품 수주 및 공정 개발 등 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 투자를 이어간다. 항체 의약품 CDMO 사업 확장은 물론 완제의약품(DP : Drug Product)과 세포·유전자 치료제(Cell·Gene Therapy) 생산이 가능한 시설로 전환한다. 시리큐스 공장 운영과 바이오 제약사가 밀집된 북미 지역 판매 영업을 위한 미국 법인 설립과 10만 리터 이상 규모의 생산 공장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

이후 롯데헬스케어 대표(롯데지주 부사장)은 BMS 인수와 관련해 “최

첨단 시설인 시리큐스 공장을 글로벌 제약 사업에 추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북미 지역에서 바이오 의약품 CDMO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 롯데지주는 신성장동력이 될 미래사업으로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5일 ‘롯데바이오로직스’ 상표를 등록하고 업종을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CMO)로 한다고 밝혔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오는 6월 미국 샌디에이고 바이오 업계 행사 ‘바이오 USA’에 참석할 예정이다. 롯데의 바이오·헬스케어 사업 진출은 지난해 8월 가능성이 떠올랐다. 롯데지주는 8월 ESG 경영혁신실 산하에 바이오팀(신성장2팀)과 헬스케어(신성장3팀)를 신설했다. 헬스케어팀은 헬스케어 전문회사 ‘롯데헬스케어’를 설립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마이크론, 세계 첫 232단 낸드 연내 양산

178단 낸드 이어 차세대 메모리도 ‘세계 최초’ 타이틀 빼앗길 가능성

미국과 중국 메모리 반도체 굴기 각 심상치 않다. 전폭적인 투자를 발판으로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15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최근 인베스터 데이 2022를 열고 차세대 메모리 양산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낸드플래시는 올해 말 232단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176단 낸드 양산에 성공한데 이어 차세대 낸드도 먼저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10나노급 5세대(1b) D램 양산 자신감도 내비쳤다. 올해 안에 1b 양산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며, EUV가 아닌 ArF 공정으로 양산하겠다고 확정했다. 업계에서는 마이크론이 12.8나노로 1b D램 개발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아직 차세대 메모리 양산 계획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순조롭게 차세대 메모리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아직은 선단 공정을 라인에 적용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체 ‘초격차’가 추격당하고 있다는 우려도 이 때문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가 10나노 4세대(1a) D램과 178단 낸드에 이어 차세대 메모리에서도 ‘세계 최초’를 뺏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반도체 업계에서는 마이크론 기술력

이 아직 국내 업체를 위협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낸드는 일찌감치 더블스택을 적용했고, D램도 여전히 EUV를 사용하지 못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이유다. 선단 공정 미세화 외에 여러 기술력에서도 차이가 커서 성능면에서도 여전히 국내 메모리와 비교해 떨어진다 지적이다.

다만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데에는 부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미세 공정 난이도가 크게 올라간 탓.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전후공정 뿐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메모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만이 아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분위기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YMTC가 하반기부터 낸드 양산을 확대, 낸드 가격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YMTC낸드는 아직 128단에 불과하고 성능도 떨어지지만, 가격 경쟁력이 높아서 중국 현지를 중심으로 저가 제품에서 수요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이 반도체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양산뿐 아니라 장비 등 반도체 기반 산업에도 투자를 강화하면서 다시 반도체 굴기에 나서는 모습도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내 메모리 기술력이 여전히 한참 앞서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인 미세 공정에서는 격차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라며 “중국도 추격에 나서면서 위기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LX하우시스

www.lxhausys.co.kr

“가격 적당한데?”  
“적당해서 선택한 키친은 정말 좋은 키친일까요?”



적당이 아닌  
나의 안목에 맞춘 키친



달으면 깔끔한 스마트 허든키친



힘께 세븐가되는 세프 아일랜드



더 넉넉한 대형 멘트리장



열지않고 보는 모션뷰 허부장

공간을 넘어 공감을 설계하다

LX Z:IN 인테리어